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자료활용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김영희·박지현·이은주*
한경대 아동가족복지학과·신흥대학 유아교육학과*

The Effects of Childcare Centers Accreditation on Teachers' Utilization of Activity Materials and Interaction with Children

Kim, Young Hee · Park, Ji Hyun · Lee, Eun Joo*
Child & Family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 Ansong, Korea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inheung College, Gyeonggi, Korea*

ABSTRACT

Recently, many childcare center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assessment accreditation. 115 teachers who did participate or did not participate in the accreditation process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e examined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in accredited centers and in non-accredited centers in terms of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work environment, the utilization of activity materials and the interaction with children. In addition, using the regression model, we analyzed the effects of several characteristics of teachers and childcare center's accreditation on the utilization of activity materials as well as the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childre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the level of work environment of non-accredited centers was lower than that of accredited centers. Second, compared with teachers in non-accredited centers, teachers in accredited centers used more and higher levels of activity materials, and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interactions with children. Third, including accreditation, use of help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eacher and children. Forth, not only the accreditation system, but also work hours, work experience, children's age and use of help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sing materials in childcare activities. Conclusively,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teachers in accredited centers is important in terms of facilitating the quality of activities and the interactions with children.

Key words: childcare centers accreditation system, teacher-child interaction, utilization of activity materials

I. 서론

우리나라에서 1991년에 만들어진 영유아보육법은 산재되어 있던 아동보육에 관한 법률들을 통합한 것으로 보육사업의 체계화 및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 제정이후 지난 10년간 보육시설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 2007년 말 기준 30,856개소에 이르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숫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등 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부정적 평가 또한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부정적 평가란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에 따른 보육내용의 부실 그리고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에 의해 야기된 보육환경의 열악함, 보육형태의 획일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여성가족부 2005)과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정부는 영유아보육의 사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보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김향은 2008),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Assessment Accreditation System)’ 도입이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보육현장을 일정한 지표에 의거하여 점검한 후 국가가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며, 부모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보육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유용한 시스템으로 확립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7a).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평가인증제를 시행하지 않으나 미국, 호주 등 민간부분의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민간부분 보육서비스의 질을 일정기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인증제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이옥 2002).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아래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의 5.6%에 불과하며(2006년 12월 기준: 여성가족부

2007b), 보육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나 준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평가인증제 시행은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평가인증제는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는데, 2009년까지 1차시행시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007년 말 기준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수는 15,800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51.2%가 참여하였으며, 그 중 6,075개소(19.7%)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향은 2008). 현재 여성가족부는 모든 보육시설들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아래 평가인증제를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인증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 치우개선비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수행되어온 초기연구들은 제도마련이나 시행모형의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서문희·이상현·임유경 2000; 양옥승 2000; 여성부 2004; 이기숙 2002; 이옥 2002), 이들 연구들은 주로 평가인증제도 추진배경과 운영체계를 설명하였으며 인증지표안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평가인증제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인증에 참여했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 등이 조사되었다. 2005년도 평가인증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여성가족부 2006)에 의하면, 평가인증을 통과한 614개 시설의 대부분의 종사자들(87.8%)이 참여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자부심과 전문성 향상의 욕구가 높아졌고 유아들의 경우 해당시설을 더 좋아하게 되었으며 보육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2006년 참여시설 2824개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 따르면(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2007), 평가영역 중에서 보육환경, 상호작용 순으로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평가인증에 참여한 이후로 대부분 시설(88.7%)의 보육수준이 실제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국공립에 비해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인증참여 전보다 참여 후

에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정찬우·김언주·민현숙 2008), 평가인증제도가 민간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히 보육교사의 질적수준이 강조되는데, 여러 연구들은 평가인증제가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구의 연구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이직율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Loane 1997; 이옥 2002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효과분석에서도 평가인증 참여가 교사의 지식과 기술의 발달 등 전문성 발달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혜선·현정희 2008). 유희정(2007)의 연구에서도 인증통과 후 교사는 영유아와 더욱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하거나 언어학습, 사회성활동, 창의적 표현활동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좀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으로 평가인증 과정을 마친 보육시설 교사들의 경험사례를 분석한 연구(김향은 2008)에 따르면, 인증 과정을 겪으며 교사들은 스스로 긍정적 자세와 적극적 태도, 업무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아동중심의 관점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고, 일일보육계획안에 따라 계획적인 수업준비와 교구제작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유아간 상호작용은 유아의 다양한 발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정서적, 언어적 그리고 행동적 상호작용이란 보육교사가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태도로 유아에게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고, 칭찬, 격려 등의 긍정적 언어표현과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며 바람직한 모델링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비롯한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을 촉진한다고 강조한다. 교사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안정적이고 교사가 유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영유아가 교사의 지시에 협조적이고, 사려 깊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lloway & Reichhart-Erickson 1988; Karmaniola 1994; 황현주 1991). 그러나, 교사가 영유아와 갈등관계를

갖거나 정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등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긍정적인 사회행동 및 과업지향성과 역기능적으로 관련되었으며,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Phillips, Scarr & McCartney 1987; Pianta 1994; 이기숙·김영옥·박경자 2005). 따라서 최근 보육 현장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육활동 자료를 활용하는 내용 및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내는 것은 평가인증제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영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거나 다양한 활동자료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등의 보육교사의 질적 측면은 적절한 근무환경이 주어졌을 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낮고 집단크기가 작으며 근무시간이 길지 않고 휴식시간 및 공간이 개별적으로 배치되는 경우 보육교사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 2007; 최혜영·박주희 2004). 또한 보육교사가 전문적 훈련이나 교육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절한 경력을 소유할 때 보육활동을 충분히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유희정·이미화 2004).

그러나 지금까지 평가인증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김향은 2008), 평가인증제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 실증조사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한 평가인증과 관련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인증유무에 따라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근무환경, 자료 활용 및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평가인증, 교사특성 및 근무환경이 자료활용 및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근무환경은 차이가 있는가?
2.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 교사의 보육활동 자료활용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는가?
3.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근무환경을 통

제한 후 평가인증은 보육활동 자료활용 및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표집인 편의표집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21인 이상 보육시설 42개소를 방문하여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 교사 70명과 비참여시설 교사 70명을 선정하였다. 총 140명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두 달 동안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어린이집의 협조를 얻어 아동학 전공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조사를 하여 이루어졌으며, 부실기재를 제외한 총 11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분석

먼저,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으로 학력, 교사경력, 시설유형 및 자격증 종류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조사는 김종해(2001)의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설문지를 참조하여 7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교사가 담당한 유아 연령 및 유아 수, 근무시간, 휴식시간 유무, 보조교사 유무, 교사연수 참여회수 및 대체교사 채용여부 등의 질문에 응답케 하였다.

이 연구의 첫번째 종속변수인 교사-유아간 상호작용 척도는 The Assessment Profile for Early-Childhood Program (APECP) 평가척도와 이은혜와 이기숙(1996)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져 유아 요구에 능동적 반응을 보여주는 정서적인 상호작용 6문항, 칭찬·격려·부가적 설명 등의 언어적인 상호작용 7문항, 적극적 모델링, 긍정적인 신체표현 등의 행동적인 상호작용 7문항으로 총 20문항이며,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가지 하위요인 점수를 합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유아간 질적으로 우수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alpha=.94$ 로 나타났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보육활동 자료활용 척도

는 Harms와 Clifford가 제작한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ECERS)을 임재택(1983)이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 환경평정척도를 참조하여 8문항을 선정하였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학습, 창의성, 사회성 활동을 포함하는 보육활동 자료를 효과적으로 풍부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alpha=0.88$ 로 나타났다.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과 Chi-square 검증, t검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평가인증 유무에 따른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 근무환경, 교사의 보육활동 자료활용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호작용 및 자료활용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의 교사 수는 61명(53%), 참여하지 않은 시설의 교사 수는 54명(46%)이었으며, 조사시점 당시 참여시설 모두 인증에 통과된 상태이었다.

1. 평가인증 유무에 따른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 및 근무환경의 비교

먼저,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을 평가인증시설과 비인증시설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대상자 115명의 학력은 전문대졸이 55.7%로 절반을 넘었으며, 대졸 20%, 고졸 19.1%순이었다.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학력을 비교해보면 인증시설 교사들의 대졸이상 교육수준이 39.3%를 보인 반면, 비인증시설 교사의 대졸 이상자는 9.3%에 불과하였다. 교사경력별로는 전체적으로 3~6년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3년 미만이 33.9%, 7년 이상은 13.1%로 나타났는데, 인증유무에 따라 비교한 결과 7년 이상으로 경력이 많은 경우 인증시설의 비율은 21.3%인 반면, 비인증시설의 비율은 3.7%를 나타냈다. 보육교사의 자격은 전체적으로 1급 보육교사가 71.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급 보육교사 12.2%, 유치원교사 8.7%, 3급 보육교사 7.8% 순의 분포를 보였다. 그런데 3급 자격을 소유한 교사의 경우 인증유무에 따라 매우 다른 분포를 보여 비인증시설 교사의 16.7%가 3급 자격소지자였으나 인증시설의 3급 보육교사는 한명도 없었다.

전체 대상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보육시설(41.8%)과 민간 보육시설(43.5%)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으나,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 시설유형의 분포가 달리 나타났다. 즉, 인증받은 시설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이 과반수(54.1%)를 넘었으나, 비인증시설의 경우 민간시설의 비율은 31.5%였다. 평가인증에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8)이 조사한 인증시설의 분포현황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 민간보육시설(27.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가정보육시설 (26.1%), 국공립보육시설(23.3%) 순이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검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은 대체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유희정·이미화 2004).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담당유아연령과 근무시간을 제외한 5개 근무환경영역에서 평가인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만 3세와 4세반을 맡은 교사의 비율(4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평가인증 유무에 따른 담임 유아연령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담당유아 수 평균치 비교결과, 인증시설의 담당유아 수(12.0명)가 비인증시설의 유아 수(16.04명)보다 월등히 적게 나타났다.

시설종사자의 복무사항 중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본 조사대상자들의 평일 근무시간은 평균 10.37시간으로 전체 대상자의 3/4이 하루에 10-12시간 정도 어린이집에서 일한다고 답하였다. 보육교사 근무시간에 관한 조사는 전국규모 샘플을 가지고 조사한 유희정과 이미화(2004)의 결과인 평균 10.2시간보다 약간 길게 나타났다. 이처럼 장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Table 1. Teacher's personal characteristics by childcare centers accreditation

		Accredited center	Non - Accredited center	Total
		N(%)	N(%)	N(%)
Schooling	middle sch.	2(3.3)	20(37.0)	22(19.1)
	college	35(57.4)	29(53.7)	64(55.7)
	university	18(29.5)	5(9.3)	23(20.0)
	graduate	6(9.8)	0(0.0)	6(5.2)
Work experience	under 3yr.	20(32.8)	19(35.2)	39(33.9)
	3~6yr.	28(45.9)	33(61.1)	61(53.0)
	7~10yr.	12(19.7)	2(3.7)	14(12.2)
	11yr. over	1(1.6)	0(0.0)	1(0.9)
Qualification	child care teacher qualification 1	51(83.6)	31(57.4)	82(71.3)
	child care teacher qualification 2	3(4.9)	11(20.4)	14(12.2)
	child care teacher qualification 3	0(0.0)	9(16.7)	9(7.8)
	kindergarten teacher	7(11.5)	3(5.5)	10(8.7)
Type of center	national	17(27.9)	31(57.4)	48(41.8)
	corporate	5(8.2)	0(0.0)	5(4.3)
	occupational	6(9.8)	6(11.1)	12(10.4)
	private	33(54.1)	17(31.5)	50(43.5)

Table 2. Teacher's work environment by childcare centers accreditation

		Accredited	Non -	Total	χ^2 or t
		center	Accredited center		
		N(%)	N(%)	N(%)	
Children's age	under 2yrs. old	22(36)	17(31.5)	39(33.9)	$\chi^2 = 13.14$
	3~4yrs. old	19(31.2)	27(50)	46(40.0.)	
	5yrs.	20(32.8)	10(18.5)	30(26.1)	
No. of children	mean(SD)	12.0(4.36)	16.04(5.37)	14.02(4.90)	t=-4.42***
Work hour/day	mean(SD)	10.25(0.71)	10.5(1.02)	10.37(0.90)	t=-1.49
Break time	yes	25(41.0)	18(24.8)	43(38.7)	$\chi^2 = 9.58^{**}$
	no	36(59.0)	36(75.2)	72(61.3)	
Aid(intern)	present	28(45.9)	14(17.4)	42(27.8)	$\chi^2 = 21.13^{***}$
	none	33(54.1)	40(82.6)	73(72.2)	
No. of participation of seminars	none	1(1.6)	21(38.9)	22(19.1)	$\chi^2 = 50.93^{***}$
	1~2times/yr.	19(31.2)	29(53.7)	20(17.5)	
	3times over	41(67.2)	4(7.4)	45(39.1)	
Hire of substitute	yes	38(62.3)	9(16.7)	47(40.9)	$\chi^2 = 24.67^{***}$
	no	23(37.7)	45(83.3)	68(59.1)	

*** : p<.001, ** : p<.01, * : p<.05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중간 휴식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한명의 교사가 한 학급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이 따로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휴식시간이 제공된다는 응답율이 38.7%였으며, 인증유무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인증시설 교사(24.8%)에 비해 더 많은 인증시설의 교사(41.0%)가 따로 휴식시간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정교사이외의 보조교사 및 인턴교사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인증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chi^2 = 21.13, p<.001$), 비인증시설(17.4%)에 비해 인증시설(45.9%)에서 보육활동시간에 보조교사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교사연수에 참가하는 횟수는 비교적 저조하여 전혀 참가한 적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약 20%에 달했으며, 이 또한 인증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chi^2 = 50.93, p<.001$). 즉, 전혀 교사연수에 참가한 경험이 없다는 교사의 비율이 인증시설(1.6%)에 비해 비인증시설(38.9%)에서 훨씬 높았다. 교사연수나 보수교육의 경우 참가하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62.6%)의 대상자가 대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대체교사 채용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59.1%가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연수 참여시 수업을 대체할 교사가 있었다는 응답이 비인증시설(16.7%)에 비해 인증시설(62.3%)에서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2. 평가인증 유무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보육활동 자료활용의 비교

먼저, 보육교사와 유아간 상호작용이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 상호작용 3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증시설 교사가 비인증시설 교사보다 유아 요구에 능동적 반응을 보여주는 정서적 상호작용($t=12.58, p<.001$), 적극적인 모델링, 긍정적인 신체표현 등의 행동적 상호작용($t=9.76, p<.001$) 그리고 칭찬, 격려, 부가적 설명 등의 언어적 상호작용($t=10.67, p<.001$)정도

가 높았다. 전체적인 상호작용 또한 비인증시설 보다 인증받은 시설에서 질적으로 우수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채혜선·현정희 2008)결과와 유사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보육활동 자료활용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평균치 비교결과 인증시설 교사(33.36 점)가 비인증시설 교사(26.85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사-유아간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평가인증 참여과정을 겪으며 교사는 신체, 언어, 창의적 표현활동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자료를 보다 풍부히 만들어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Table 3. Teacher's Utilization of activity materials and interaction with children by child care centers accreditation

		Accredited	Non -	t
		center	Accredited	
		mean(SD)	center	
		mean(SD)	center	
Interaction with children	emotional	25.49 (2.57)	19.83 (2.19)	12.58***
	behavioral	29.59 (2.82)	24.18 (3.11)	9.76***
	verbal	29.09 (3.12)	22.74 (3.26)	10.67***
	total	84.18 (7.85)	66.75 (7.65)	12.01***
Utilization of activity materials		33.36 (4.37)	26.85 (4.41)	7.93***

*** : p<.001

3.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보육활동 자료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보육활동 자료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과 자료활용 변수의 상관관계는 $r=0.61(p<0.01)$ 의 중간정도로 나타나, 독립적 영역의 2가지 종속변수로 취급하였다.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두 가지 종속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변수들로서 학력, 경력 등의 개인특성 변수와 담당유아 연령, 유아 수, 근무시간, 휴식시간, 보조교사 유무 등의 근무환경 변수 그리고 평가인증 유무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에서 상호작용 및 보육활동 자료활용을 종속변수로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근무환경 변수를 투입하여 R^2 를 알아보고, 모델2에서 개인적 특성과 근무환경 변수, 그리고 평가인증 유무를 투입하여 R^2 를 알아본 후 R^2 변화량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통제변수의 설명력을 제외하였을 때 평가인증 유무가 종속변수에 얼마나 설명력을 갖는지 알 수 있다.

우선, Table 4에 의하여 첫 번째 종속변수인 보육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델1에서는 교사의 학력, 경력, 담당유아 수 및 보조교사 유무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담당유아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보조교사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정서적, 언어적 및 행동적 상호작용이 질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모델1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무를 추가로 투입하여(모델2),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 및 근무환경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평가인증유무($\beta=.67, p<.001$)가 상호작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1과는 달리 통제변수중 보조교사유무($\beta=.25, p<.001$)만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특성과 근무환경을 통제한 후 평가인증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상호작용 변량에서 24%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활동 자료활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모델1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모든 통제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델2에서 평가인증 변수를 첨가한 후에도 교사경력($\beta=.16, p<.05$), 담당 유아연령($\beta=.23, p<.01$), 근무시간($\beta=-.24, p<.01$), 보조교사 유무($\beta=.15, p<.05$)가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이 많을수록, 담당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그리고 보조교사가 없을 때보다 있는 경우 활동자료의 내용과 종류가 풍부하며 효율적으로 제공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롭게도 모델2에서 특성변수들을 고려한 후에도 평가인증 변수($\beta=.43, p<.001$)가 가장

Table 4. Regression coefficients on teacher's Utilization of activity materials and interaction with children

	Interaction with children				Utilization of activity materials			
	Model1		Model2		Model1		Model2	
	b	β	b	β	b	β	b	β
Schooling	7.61	.31***	.04	.00	2.08	.18*	-.16	-.01
Work experience	.82	.17*	.34	.07	.51	.22**	.36	.16*
Children's age	.61	.06	-.22	-.02	1.25	.29***	1.01	.23**
No. of children	-.72	-.32***	-.06	-.02	-.36	-.34***	-.16	-.15
Work hr.	-1.64	-.12	-.44	-.03	-1.85	-.29***	-1.49	-.24**
Break time	-3.69	-.15	-3.11	-.13	-.01	-.00	.15	.01
Aid(intern)	8.82	.36***	6.12	.25***	2.55	.22**	1.75	.15*
Accreditation			15.72	.67***			4.68	.43***
Intercept	81.86		71.33		43.53		40.39	
R ²	.38		.62		.43		.53	
R ² Change			.24				.10	
F	9.40***		21.99***		11.78***		15.17***	

*: p<.05 , **: p<.01 , *** : p<.001

주: 1) Accreditation: Accredited Facility 1, Non - Accredited Facility 0

2) Break time: yes 1, no 0

3) Aid: yes 1, no 0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 평가인증이 교사들의 자료활용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후 평가인증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자료활용 변량에서 10%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최근 많은 보육시설에서 활발한 참여를 보이는 평가인증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의 보육교사들의 개인적 특성 및 근무환경을 비교하였으며, 교사가 제공하는 보육활동 자료활용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인증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특성변수들과 평가인증유무가 상호작용 및 활동자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과 비참여시설의 교사 11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인증받은 시설의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력 및 경력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가지 개인특성을 가지고 본 연구의 관심인 교사의 자료활용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그들의 근무환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당유아 수, 휴식시간 유무, 보조교사 유무, 교사연수 참가횟수 및 대체교사 채용 등에서 인증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보육교사가 담당할 유아수가 적었으며, 개별적으로 휴식시간이 있다는 응답비율과 보육활동을 하면서 보조교사를 활용한다는 비율이 더 많았다. 또한 교사연수에 참가하는 교사의 비율이 더 많았으며, 이때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비율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가 제공하는 보육활동자료와 유아와의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 정도에는 평가인증 유무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

구결과(김향은 2008; 유희정 2007; 채혜선·현정희 2008)를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인증을 준비한 보육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보육환경 및 상호작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였음을 의미한다. 평가인증제에 의하여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이같은 변화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결국은 아동에게 긍정적 발달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미국 등 서구에서는 일찍이 평가인증제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보육기관이나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제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의 차이가 나타나, 인증받은 시설의 교사들은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혁신성과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일치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향은 2008).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가 시행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4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궤도에 올랐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증받은 모범적인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결코 참여하기 어렵지만은 않은 바람직한 제도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2008).

따라서 평가인증제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확산 보급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소 생소한 제도에 불안감을 느끼며 참여를 망설이는 종사자나 학부모,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의 성격 및 효과, 예를 들어 지표활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물론 보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평가지표나 지침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끊임없는 실증연구를 통해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1차시행 인증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과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김은기 2008), 인증시설 종사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보육시설의 재정지원에 대한 연계나 인증참여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모색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평가인증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공정하고 간소한 평가인증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는 인증시설과 비인증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등정

책과 연계하여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김향은 2008).

셋째, 평가인증 뿐 아니라, 보조교사 존재가 유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교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수업활동에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경우 유아들과 더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적 상호작용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최지현·박혜원 2000). 보육시설의 근무환경은 보육교사들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의 복지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체로 한명의 교사가 한 학급을 장시간 운영하는 보육실정에 따르면, 보조교사의 채용으로 개별적 휴식시간과 수업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유희정·이미화 2004).

넷째, 평가인증은 관련요인들을 고려한 후에도 교사가 보육활동시간에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의 이러한 노력으로 영유아들이 흥미와 발달에 따라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경력, 담당 유아연령, 근무시간, 보조교사 유무가 자료활용에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밝혀졌다. 교사경력의 경우, 최혜영과 박주희(2004)의 연구에서도 경력이 많은 교사반의 영유아들이 또래 또는 교사와 긍정적 상호작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경험이 영유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자극을 제공해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유아연령이 어릴수록 아이들은 기본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하므로, 교사는 놀이활동을 하면서도 유아의 행동을 주시해야하는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유아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선행학습 형태의 학습이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고 언어, 탐구, 표현활동 등의 자료가 요구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일일 평균 10.37시간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피로감이 더해져서 보육활동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육활동 내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짐작된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교사의 사

기가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연구결과(주봉관 2008)는 이를 뒷받침한다 하겠다.

지금까지 정리된 바와 같이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전국적이고 대규모적인 표본이 아니라 소규모 표본에 의하여 수집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소표본 분석에 있어 추정결과가 표본의 구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평가인증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많은 민간보육시설 가운데 평가인증제에 우선 참여한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민간시설 중에서도 규모나 재정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는 시설들이 많이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표집에 따른 제한점은 평가인증제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정찬우 등 2008)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집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평가인증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척도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면서 교사들이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였으나, 관찰이나 면접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평가인증을 받은 직후 뿐 아니라 종단적 자료를 가지고 참여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등도 시도해 봄이 필요하리 하겠다.

참고문헌

김은기(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육아정책포럼(KICCE) 9, 34-43.
 김중해(2001)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방안연구보고서. 서울 : 한국보육교사회.
 김향은(2008)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효과. 한국아동학회 29(1), 169-188.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2007) 평가인증 참여수기.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2008) 평가인증 추진현황. 서문회 · 이상현 · 임유경(200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옥승(2000) 유아교육 · 보육기관 평가인증제 개발 연구. 한국아동학회 21(4), 177-196.

여성부(2004)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모형 개발연구.
 여성가족부(2005) 보육의 시대적 흐름.
 여성가족부(2006) 평가인증 공청회 자료.
 여성가족부(2007a)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여성가족부(2007b) 2006년 12월기준 보육통계.
 유희정 · 이미화(200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유희정(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운영 평가와 과제. 육아지원기관 평가의 과제와 전망. 육아정책세미나, 43-86.
 이기숙(2002) 유아교육기관 인정제의 개발 배경. 영유아교육기관의 인정제 : 한국 · 일본 · 미국 · 영국 · 호주. 이화여자대학교 BK21 핵심사업 제10회 국제 학술대회 39-55.
 이기숙 · 김영옥 · 박경자(2005) 보육경험과 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 한국유아교육학회 25(6), 255-275.
 이옥(200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보육의 질 : 보육시설평가인증과 보육정책. 한국보육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9-22.
 이은혜 · 이기숙(1996) 유아교육프로그램 평가척도 : 교사를 위한 활용 지침서. 서울 : 창지사.
 이정숙(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과 비참여 시설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 아동교육 학회지 16(3), 253-264.
 임재택(1983) 유아교육환경 평정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논집, 10, 107-143.
 정찬우 · 김인주 · 민현숙(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학회 17(1), 269-279.
 주봉관(2008) 유아교사의 사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채혜선 · 현정희(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유무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기평가 전문성 발달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52(1), 63-84.
 최지현 · 박혜원(2000) 보육환경(보육시설 및 교사)이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문집 2(1), 73-87.
 최혜영 · 박주희(2004)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복지에 대한 보육교사의 신념과 교사 · 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질. 한국가족복지학회 9(2), 179-193.
 황현주(199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종일제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olloway SL, Reichhart EM(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 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39-53.
 Karmaniola A(1994) The effect of non-parental care and the quality of the child care setting on the young child's development : A swiss study.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2, 43-50.
 Loane S(1997) Who Cares : Guilt, Hope, and the

Child Care Debate. Reed International Books.
Australia : Pyt Ltd.
Phillips D, Scarr S, McCartney K(1987) Child 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0. 537-543.

Pianta R(1994) Patterns of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1), 15-31.